

창간
 1981년 9월 14일

연세의료원소식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NEWS

제989호
 2026년 7월 20일

발행인 금기창 편집인 윤영남 T 02.2228.1074~5 F 02.2227.7783 severance@yuhs.ac

생후 14일·3.14kg 신생아 ‘로봇 카사이 수술’ 성공

세계 최연소, 최저체중 담도폐쇄증 사례...조기 치료로 간 기능 보존 가능성 높여
 출생 전부터 산부인과·소아외과 등 협진 치료 성과



인 경

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4일 생후 14일, 3.14kg의 담도폐쇄증 신생아를 대상으로 로봇 카사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로봇 카사이 수술로는 세계 최연소이자 최저 몸무게 환자다.

지방 소화를 돕는 담즙이 소장으로 흐르지 못하고 간 안에 고이는 담도폐쇄증은 신생아 1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난치질환이다.

의대 인경 교수(외과학)는 담도폐쇄증 진단을 받고 태어난 A 양에게 5시간 8분에 걸쳐 막힌 담도를 대신해 간 입구를 소장과 직접 연결하는 로봇 카사이 수술을 시행했다. A 양은 수술 후 부작용 없이 양호한 회복 경

과를 보이며 지난달 30일 퇴원했다.

이번 로봇 카사이 수술은, 문헌상 보고된 적이 없는 세계 최연소, 최저체중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첫번째 케이스다.

A 양은 임신 중 산전 초음파를 통해 간 하부 낭성 병변 진단을 받았다. 액체가 차 있는 주머니인 낭성 병변이 있다면 담즙이 지나가는 길인 담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A 양의 어머니는 바로 세브란스병원 고위험 산모 태아 통합치료센터 의대 권자영 교수(산부인과학)의 진료를 받았다. 의대 은호선 교수(소아과학)와 소아외과 의료진도 진료에 참여하며 A 양의 치료 계획을 논의했다.

출생 직후 A 양은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정밀검사를 받았다. 2일째 되던 날 복부초음파를 통해 간 하부

에 낭성 병변이 다시 확인됐고, 추가 검사를 통해 담도폐쇄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의료진은 조기에 수술을 결정했다.

담도폐쇄증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담즙이 간에 고이면서 간 손상으로 이어져 간경화, 간부전이 생길 수 있다. 담도폐쇄증은 막힌 담도를 제거하고 간 입구(간문부)와 소장을 직접 연결해 담즙을 흐르게 하는 카사이 수술이 표준치료다. 수술법을 개발한 일본 의사 이름을 붙였다.

세브란스병원이 이번에 시행한 로봇 카사이 수술은 몸체가 작은 아이의 좁은 복강 안에서 장기를 떼어내고 이어 붙여야 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수술에는 소아외과, 신생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수술간호팀, 로봇내시경수술센터 등 관련 의료진이 참여했다.

수술을 집도한 인경 교수는 “담도



의대 인경 교수(외과학)가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폐쇄증은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간 손상이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조기 수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환아는 산전 진단 단계부터 출생 직후 평가, 신생아중환자 치료, 소아외과 수술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져 빠른 시기에 치료할 수 있었다”면서

“3kg대 신생아에게 로봇 카사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수술 공간과 기구 조작 측면에서 매우 까다로운 도전이었지만, 로봇수술의 정밀성과 세브란스병원이 자랑하는 다학제 협력이 더해 안정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상시험센터, 개소 20주년 맞아 발자취 돌아보고 비전 공유하는 자리 가져

지난 20년간 축적한
 운영 경험과 성과 돌아봐

AI·디지털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 대응 방향 모색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가 3일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개소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변화, 성과, 그리고 미래(Changes, Achievements, and the Future)’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과 김여수 연구부원장, 김혜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역대 임상시험센터 소장과 병원 주요 보직자, 국내 임상시험 관련 기관 및 산업계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는 2006년 보건복지부 지역임상시험센터로 지정되면서 문을 열었다. 연구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글로벌 협력

확대, 디지털 기반 연구환경 조성, 운영 체계 고도화를 통해 국내 임상시험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후 연구지원 조직과 서비스를 확대하며, 연구자와 대상자를 위한 임상시험 지원체계를 발전시키고 임상시험 수행 기반을 다져왔다.

센터는 연구지원 인프라 확충과 함께 디지털 기반 임상시험 환경 조성에도 힘써왔다. 국내 최초로 병원 처방전달시스템 OCS와 전자의료기록인 EMR을 연동한 전자자료수집 시스템(e-CASE)을 비롯해 임상시험 통합관리 플랫폼(U-CTMS), 교육관리시스템(CREDU) 등을 구축했다. 연구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글로벌 제약사, 연구기관과도 협력을 확대해 연구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심포지엄 첫번째 세션에서는 임상시험센터 20년 여정과 연구지원 체계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연구자와



의 협업 모델 변화를 소개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임상시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운영 혁신과 임상연구지원조직인 ARO의 역할과 가치를 다뤘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임상시험 환경 변화에 따른 대상자 보호, 글로벌 임상시험 트렌드와 운영 로드맵 등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년간 축적한 임상시험 운영 경험과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는 ‘넥스트 세브란스, 넥스트 임상시험센터(NEXT SEVERANCE, NEXT CTC)’를 비전으로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 협력을 기반으로 연구지원 체

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차세대 임상시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최혜진 임상시험센터 소장은 “임상시험센터는 앞으로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연구 원칙을 바탕으로 디지털과 AI 기반의 새로운 임상시험 환경을 선도하고 미래 의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소아 난치성 뇌전증 환자 VNS 첫 시행

〈미주신경자극술〉

약물·식이요법 이어 신경조절치료까지 진료 체계 확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최근 약물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소아 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첫 미주신경자극술(VNS)을 시행했다. 이번 시술을 계기로 병원은 약물치료와 케톤생성 식이요법에 이어 신경조절치료까지 아우르는 진료 체계를 갖추게 됐다.

뇌전증 환자의 약 70%는 한두 가지 항뇌전증제로 발작이 조절되지만, 나머지 30%는 발작이 계속되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다.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경우 약을 추가하더라도 발작이 사라질 가능성이 낮아 약물 외 치료를 함께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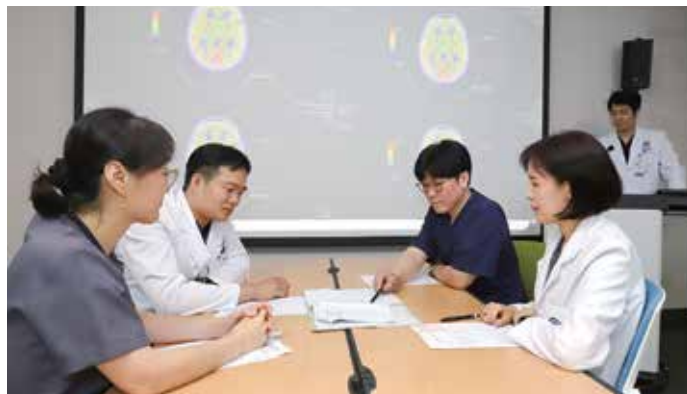
대표적인 치료 선택지로는 수술, 케톤생성 식이요법, VNS와 같은 신경조절치료 등이 있다. 특히 소아의 경우 발작이 반복되면 발달 중인 뇌가 영향을 받아 인지·언어·행동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적절한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VNS는 뇌의 특정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이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적 치료다. 목 부위에 전극을 연결하고, 쇄골 아래 피부에 자극 발생 장치를 삽입해 미주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뇌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하고 발작의 빈도와 강도를 줄

이는 방식이다.

이번에 시행한 시술에는 발작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환자 패턴에 맞춰 세밀하게 자극을 조절하는 최신 세대 장비가 적용됐다. 의료진이 강도와 빈도를 미리 설정해 일정하게 자극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발작에 앞서 나타나는 미세한 심박수 증가를 장치가 감지해 자극을 전달함으로써 발작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경기 권역에서 소아 환자 대상 VNS에 해당 장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아 난치성 뇌전증팀은 의대 구형모(용인 소아청소년과), 황준규(용인



신경외과) 교수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소아신경과는 발작 유형과 뇌파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항뇌전증제 치료를 총괄하며, 시술 후에는 외래에서 자극 강도와 주기 등 치료 설정을 조절한다. 신경외과는 VNS 장치 삽입을 비롯한 수술적 치료와 수술 전후 관리를 맡는다.

또한 영양팀은 소아신경과와 협력해 약물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일부 소아 환자에게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운영한다. 전담 영양사는 환자에 맞춰 식단 설계와 영양 관리를 담당한다. 투병으로 정서·행동·발달상의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진료도 연계한다.

의대, 제23회 에비슨 의생명 심포지엄 개최

‘디지털 정신의학’ 세계적 석학들 최신 지견 나누고 임상적용 가능성 논의

의과대학이 지난달 11일부터 이틀간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과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제23회 에비슨 의생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에비슨 의생명 심포지엄은 의대 초대 학장인 에비슨 박사를 기념해 매년 열리는 국제 학술대회다.

‘디지털 정신의학’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석학들이 디지털 정신의학의 최신 연구 동향과 임상 적용 가능성을 공유했다. 특히 2

일자 행사는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열려 스마트병원 현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양일 모두 AI 기반 실시간 디지털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첫째날 키노트 세션에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교 애덤 가잘리(Adam Gazzaley) 교수가 ‘디지털 의학: 정신건강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션 1에서는 디지털 표현형 분석을 주제로 케임브리지대학

교 피터 제이슨 렌트프로우(Peter J. Rentfrow)·다트머스대학교 에밀리 프레스러(Emily K. Pressler) 교수 등이 발표와 토의를 이어갔다.

세션 2에서는 신경조절과 디지털 치료제를 주제로 뉴욕대 랭곤 헬스 리샤베(Leigh E. Charvet), 서울대 조희영, 가톨릭관동대 정경운, 의대 김은주 교수(강남 정신건강의학과)가 발표했다. 세션 3에서는 디지털 정신건강 기술의 규제 승인과 시장 진입을 주제로



의대 신재용 교수(예방의학), 유니버설 브레인 카즈 오키다(Kazu Okuda) 대표 등이 경험과 사례를 공유했다.

둘째날 세션 1에서는 스마트병원인프라와 솔루션을 직접 살펴보는 용인세브란스병원 투어가 마련됐다. 세션 2에서는 스마트병원과 산업계 협력을 통한 연구·사업화 전략이 논의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신진 연구자가 4개 분과로 나눠 소그룹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최재영 의대학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건강 분야의 새로운 미래와 환자 중심 디지털 의학 생태계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제39회 보원학술상에 하운 교수



의대 하운 교수(신경외과학)가 제39회 보원학술상을 수상했다. 8일 종학관 331호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구연 연세대 명예교수 등 역대 수상자들이 참석했으며, 하운 교수는 상금 1000만원과 상패를 수상했다.

보원학술상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해외 우수 저널에 시상 전년도 게재 연구논문 중 가장 뛰어난 업적의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보원학술상은 의과대학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상 가운데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의대 교원들 연구의욕 진작과 의대 발전을 위해 기금을 전한 고 윤덕진 연세대 명예교수의 호를 따 제정해 1988년부터

시상해왔다.

하 교수는 저명한 국제학술지 ‘신호 전달 및 표적 치료(Signal Transduction and Targeted Therapy, IF 52.7)’에 척수 손상 후 신경 회복을 제한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표적으로 한 치료 전략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하 교수 연구팀은 척수손상 이후 반응성 별세포(astrocyte)에서 MAOB라는 효소 활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신경 회복을 방해하는 물질인 GABA가 과도하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 과정이 손상된 신경 재생과 운동기능 회복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임을 규명했다. 또 MAOB 활성을 억제하면 신경 재생에 필요한 신호가 회복되고, 축삭 재생과 운동기능 개선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선택적 MAOB 억제제인 ‘KDS2010’을 활용한 척수손상 동물 모델에서 신경 재생과 운동기능이 유의하게 회복됐다고 밝혔다.

의대, 쇼그렌증후군 안구 염증 치료제 개발 착수

눈 표면 염증 원인 신호 차단하는 국소 유전자 치료제 개발 목표 국가신약개발사업 연구과제 선정돼 3년간 12억원 정부지원금 투입



전 익 현



장 경 구

의과대학이 쇼그렌증후군으로 생기는 만성 안구 염증을 치료할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의대 전익현(안과), 장경구(해부학)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가신약개발사업단(단장 박영민)이 지원하는 2026년도 제1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6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3년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에는 정부지원금 12억원이 투입된다.

쇼그렌증후군은 우리 면역체계가 눈물샘, 침샘 등을 공격해 만성 염증을 일

으키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안구 건조와 결막 염증을 유발하고, 점액을 만드는 배상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 증상이 심해지면 각막 궤양이 발생하거나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 인공눈물이나 항염증 점안액, 면역억제제 등을 투여하지만 염증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

연구팀은 세포 안에서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스텝을 억제하기 위해 짧은 간섭 리보핵산(siRNA)을 눈 표면 세포에 전달해 염증 차단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siRNA는 특정 유전자 작동을 줄여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이다. siRNA를 눈 표면 세포 안으로 전달하기 위해 유전물질 전달체 지질나노입자 기술을 활용한다.

치료 후보물질 효과는 환자 유래 결막 오가노이드에서 검증한다. 오가노

이드는 실제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치료 효과 예측에 도움이 된다.

전익현 교수팀은 안과 임상 경험과 안구 표면 특화 약물 전달 기술을 바탕으로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과 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한다. 장경구 교수팀은 환자 유래 결막 오가노이드와 유전자 분석 기술을 활용해 치료제 투여 후 염증의 감소 여부와 손상된 조직 기능 회복을 평가한다.

연구팀은 1차년도에 스텝을 억제하는 후보물질과 안구 표면 전달체를 선별하고, 2차년도에는 결막 오가노이드와 동물모델에서 효능을 검증한다. 최종 후보물질을 도출하면, 후속 비임상 연구와 임상 개발에 나선다.

전익현 교수는 “눈 표면 염증 핵심 신호를 차단하는 치료제와 환자 유래 결막 오가노이드 검증 체계를 결합해 실제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포도막흑색종 전이 위험 예측 정확도 높일 단서 찾았다



이 승 규

의대 이승규, 김용준 교수(안과학) 연구팀은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연구팀과 함께 포도막흑색종 환자 유전



김 용 준

가장 흔하게 생기는 안구종양으로, 전이되면 치료가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다. 특정 염색체로 전이 위험을 예측하

체 분석을 통해 전이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유전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실험 및 분자의학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IF 17.5)'에 게재됐다.

포도막흑색종은 성인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안구종양으로, 전이되면 치료가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다. 특정 염색체로 전이 위험을 예측하

는데, 같은 고위험군이라도 전이 여부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팀은 세브란스병원에서 포도막흑색종 진단을 받은 환자 40명의 유전체 전체를 분석해 전이와 관련된 유전체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BAP1 유전자에 생긴 이상이 전이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이 환자 83%에서 BAP1 유전자 이상이 발견됐으며, 전이되지 않은 환자에서는 14%에서만 BAP1 유전자 변이

가 있었다.

국제암유전체컨소시엄에 등록된 환자 75명 자료를 활용해 검증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포도막흑색종 환자 전이 위험을 나누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시했다. 새 분류체계를 적용한 결과, 가장 낮은 위험군에서는 전이가 확인되지 않았고, 중간 위험군 전이율은 6%, 높은 위험군은 50%, 가장 높은 위험군은 100%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암 시작 시점을 추정하는 분석도 진행했는데, 포도막흑색종과 관련된 주요 염색체 변화는 20대 초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암으로 진단되기 30~40년 앞서 전이와 관련된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 따라 전이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조기에 가려내고, 환자별로 검사와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변화를 함께 보면 기존보다 더 정확하게 전이 위험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세포 스트레스 속 생존·사멸 가르느 유전자 조절 원리 규명



김 형 표

의대 김형표 교수(열대의학)와 연세의생명연구원 주정식 조교 연구팀은 세포 스트레스 반응 핵심 조절 단백질인 ATF4와 CHOP이 유전자 조절 부위인 인핸서를 활성화하고, 인핸서와 유전자 사이 입체적 연



주 정 식

살펴보는 기존 접근을 넘어, 유전자 조절 부위 활성화와 스트레스 반응 단백질 결합, 핵 안에서 형성되는 유전자와 조절 부위 사이 3차원 연결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인간 세포에 소포체 스트레

스를 형성해 세포 운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핵산연구(Nucleic Acids Research, IF 15.0)'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유전자 발현만 살펴보는 기존 접근을 넘어, 유전자 조절 부위 활성화와 스트레스 반응 단백질 결합, 핵 안에서 형성되는 유전자와 조절 부위 사이 3차원 연결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ATF4 단백질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전자 조절 스위치를 켜고, 스위치와 유전자 사이 연결 중심이 됨을 발견했다. ATF4가 제거된 세포에서는 스트레스에 반응해 활성화돼야 할 많은 조절 부위와 유전자 사이 연결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또 다른 단백질인 CHOP은 ATF4가 만드는 반응 가운데 일부를 선택적으로 조절했다. ATF4가 세포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면, CHOP은 그중에서도 세포 사멸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더 강

하게 작동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ATF4 단백질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전자 조절 스위치를 켜고, 스위치와 유전자 사이 연결 중심이 됨을 발견했다. ATF4가 제거된 세포에서는 스트레스에 반응해 활성화돼야 할 많은 조절 부위와 유전자 사이 연결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또 다른 단백질인 CHOP은 ATF4가 만드는 반응 가운데 일부를 선택적으로 조절했다. ATF4가 세포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면, CHOP은 그중에서도 세포 사멸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더 강

하게 작동하도록 유도했다.

반면 아미노산을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등 세포가 스트레스를 견디고 살아남는 데 필요한 일부 유전자들은 CHOP이 없어도 ATF4에 의해 작동했다. 이를 통해 ATF4가 유도하는 스트레스 반응이 CHOP과 협력 여부에 따라 '생존을 위한 적응 반응'과 '세포 사멸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유전자 조절 스위치를 직접 억제하는 실험도 진행했다. 또 세포핵 안에서 유전자와 조절 스위치가 실제로 얼마나 가까워지는지를 영상으로 측정해 유전자와 조절 스위치의 입체적인 연결이 실제 유전자 작동에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소변 냄새’로 전립선암 선별하는 진단법 개발



의대 구교철 교수(강남비뇨의학과)가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태현 교수와

전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후각 바이오센서 기반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미국화학회 센서스(ACS sensors, IF 10.9)' 최근호에 게재됐다.

우리나라 남성암 발생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는 전립선암은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 정확도(특이도)가 낮아 불필요한 조직검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연구팀은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 단점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비침습적 진단방법 개발 필요성에 주목하여 연구에 돌입했다.

연구팀은 훈련된 탐지견이 환자 소변 냄새를 맡아 높은 정확도로 전립선암을 감별했다는 과거 연구자료에서 영감을 받아 연구 개발을 진행했다. 먼저 소변 속 냄새 물질을 감지하는 센서를 만들었다. 냄새를 감지하는 후각 수용체 단백질 6종을 미세한 인공 세포막 입자인 '나노디스크'

와 결합한 모델이다. 소변 냄새 물질이 센서와 반응하면 형광 신호가 달라지는데, 연구팀은 이러한 변화 양상을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 냄새 패턴을 학습시켰다.

센서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전립선암 환자군 40명과 대조군 33명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AI 모델 정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총 200개에 달하는 소변 샘플 세트를 구축해 교차 검증 작업도 수행했다.

연구 결과, 소변 속 전립선암 관련

냄새 물질을 감지하는 데 중요한 단백질 3종(OR2W1, OR51E1, OR51E2)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이 단백질의 반응 패턴을 분석해 전립선암 환자와 정상인을 구분했다.

AI 학습을 바탕으로 개발한 머신러닝 모델은 정확도(Accuracy) 면에서 0.890을 보여 89% 확률로 전립선암 환자와 정상인을 감별해냈다. 머신러닝 모델이 지닌 민감도와 특이도를 동시에 담아 측정 정확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AUC 수치는 0.964±0.0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치대, 치과교정 국제 미니레지던시 개최

미국·스페인 등 34개국 168명 참여...강의와 실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치과대학 교정과학교실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4회 연세 치과교정 국제 미니레지던시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일본, 태국 등 6대륙 34개국에서 168명의 치과의사가 참여했다.

각 나라 개원의뿐만 아니라 미국 샌프란시스코대학교와 퍼시픽대학교, 호주 시드니대학교 등에 속한 교수,

전공의가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난이도 높은 매복-유착치 치료와 골격적 부정교합 비수술 치료, 세계 최초로 도입한 성인의 악정형 치료 등에 대해 강의, 라이브 서저리, 실습 및 임상참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투명교정 등 최신 기법의 생역학적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장비와 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 치료법을 심도있게 다뤘다. 이외에도 임상술

기뿐만 아니라 얼굴 스캐너, 구강스캐너, 고정밀 3D 프린터 등 교실과 협업해 개발한 최신 의료기기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9일간 이어진 일정 중 이달 5일에는 코엑스 4층 강당에서 '2026 트렌드-임상교정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국내외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치주과와 교정과 등이 다학제 협진을 통해 '가망 없는 치아를 살리는' 술식에



서 교정치료의 중심적 역할을 시연해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어 6일 세빛섬 2층 컨벤션에서 열린 갈라디너에서는 국내외 미니레지던시 참가자들과 의료산업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과정 책임교수인 차대 이기준

교수(교정과학)는 "연세 국제 미니레지던시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구성으로 행사 규모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치의학 교육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 관절·척추센터 개소...원스톱 진료 구축

용인세브란스병원이 8일 병원 2층 외래에서 관절·척추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개소식에는 박진오 용인세브란스병원장, 김형식 관절·척추센터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관절 및 척추 질환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검사와 협진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진료 영역을 관절·척추센터로 통합 운영한다. 센터는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류마티스내과를 중심으로 진단, 치료, 통증 조절, 재활로 이어지는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센터는 환자 내원 횟수와 병원 체

류 시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진료 프로세스와 환자 동선을 개선해 일부 특수 검사를 제외하고 내원 당일 검사가 가능한 원스톱 진료 체계를 지향한다. 여러 진료과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협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해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형식 센터장은 “관절 및 척추 질환은 환자마다 증상 양상과 진행 정도, 필요한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며 “관절·척추센터는 환자별 상태에 맞는 진료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대학-공과대학 융합연구 세미나 개최



간호대학이 7일 자유관에서 공과대학과 ‘2026 간호대학-공과대학 융합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진행된 학제간 융합연구 성과와 올해 신규사업에 대한 연구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현경 간호대학장은 간호대와 공대 협력 연구가 2018년 씨앗공동연구에서 출발해 현재 ‘간호공학(nursing engineering)’ 분야의 중요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용 공대학장은 추후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을 함께 아우르는 융합연구 성과발표회를 기획해 학제 간 협력연구 네트워크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융합연구 성과 발표에서는 먼저 간호대 이향규 교수와 공대 김홍조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연합학습 기반 인지장애 조기진단AI 모델 및 디지털 건강 증대 시스템 개발’ 과제가 소개됐다. 간호대 유정민 연구교수와 공대 김태진 박사는 대규모 국가자료의 이질성과 기관 간 데이터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연합학습과 국내 데이터 특성에 맞춘

10단계 데이터 조화(Harmonization) 프로세스를 통해 구축한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두번째 연구 발표는 간호대 이현경 교수·공대 조정호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섭취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센서 탑재 스마트 텀블러 개발’ 과제였다. 발표를 맡은 조정호 교수는 멀티모달 센서를 통해 음료에 대한 건강 관련 섭취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제작해 특허 출원까지 성공했다. 발표 이후 상용화와 후속 연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2026년도 신규 연구기획안 발표 과제는 간호대 장연수 교수·공대 현재상 교수 연구팀이 진행하는 ‘스마트 수술실 내 수술 비늘 추적관리 시스템 개발’이었다. 연구는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잔류 이물질 중 수술용 바늘 검출 자동화 추적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연구팀은 간호사 업무 부담과 수기 계수 과정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AI 영상 인식과 센서 기술을 결합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치대, 중국 쓰촨대학교 치과대학과 MOU 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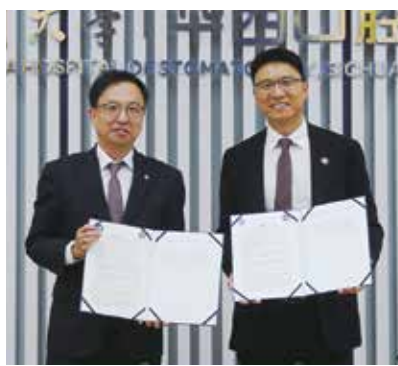
2018년 이후 8년만 교육·임상 협력 강화

치과대학은 7일 중국 쓰촨대학교 치과대학을 방문해 양 기관 간 학술 및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갱신했다.

이번 방문에는 정영수 치대학장을 비롯해 강정민 학생부학과장과 김선일 기획부학과장, 김기우 연구부학과장, 김지환 교육부학과장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2018년 처음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으며, 특히 2021년부터는 한·중·일 3국 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캠퍼스 아시아

(CAMPUS Asia) 한중일 확장사업’의 사업단으로 참여해 학생, 교원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환영사와 기관 소개를 시작으로 MOU 갱신 협약식을 진행했으며, 향후 교육과 연구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인 공동연구 주제를 공유하고, 연구자 상호 방문, 대학원 생과 신진연구자 교류, 단기 연구 체류 프로그램 등 인적 교류 제도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어 국가 실험교육시범센터, 구



순구개열·치과보존과·보철과 등 임상 진료과, 화서구강의학박물관, 국가구강질환중점실험실을 견학하며 교육·연구 인프라를 살폈으며,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의료원, 25년 근속 교직원 힐링캠프 성료

의료원 인재경영실이 제주도에서 25년 동안 의료원 발전과 환자를 위해 힘쓴 장기근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25년 근속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힐링캠프는 교직원들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8~20일과 25~27일 2박 3일 일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행사에는 교직원과 가족 112명이 참석했다.

참가 교직원들은 함덕해변 산책과 에코랜드 테마파크 방문을 시작으로 요트투어와 본테박물관 관람, 동문시



장 탐방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추억을 나눴다. 만찬 자리에서 의료원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기근속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 자연을 만끽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쉼과 여유를 누

리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오랜 시간 함께 일해 온 동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의료원으로부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등의 소감을 전하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MZ 치대생 위한 교수법은?”

치과대학 여름철 교수세미나 성료

치과대학이 4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수법과 리더십’을 주제로 여름철 교수세미나를 열었다. 정영수 치대학장과 박원서 치과대학병원장 등을 비롯해 60여명의 치대 교수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수 및 부서에 대

한 시상과 다양한 분야 강의가 이뤄졌다.

우수업적교수상 연구부문에는 문석준(구강생물학), 이종석(치주과학) 교수가, 진료부문에서는 남웅(구강악안면외과학), 최윤정(교정과학), 김하림(교정과학), 전미정(보존과학)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우수강좌상은 권재성

(치과생체재료공학), 신동민(구강생물학), 김의성·김선일(보존과학), 김수연(BK21), 정서연·하지선(치의학교육학) 교수가 수상했다. 우수임상부서로는 보존과가 선정됐다.

시상식 이후에는 특강이 이어졌다. 박남기 언론홍보대학원 원장이 ‘AI 시대, MZ세대와의 소통과 리더십’에 대해, 신혜경 서울의대 객원부교수가 ‘MZ 학생과 대화를 통한 교육, 어떻게 풀어나가면 될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치과대학 주요 사업내용과 의대 신축 건물 이전 후



치과대학 공간 활용 계획, 치과대학병원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제언 등이 다뤄졌다.

정영수 치대학장은 “이번 세미나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수

법과 리더십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한화생명, 치매 케어 솔루션 구축 업무협약

치매 솔루션 연구 및 상품 개발 등 공동 추진

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30일 63빌딩에서 한화 생명과 치매 케어 솔루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과 김어수 연구부원장, 이경근 한화생명 대표이사를 비롯해 두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치매 솔루션 연구 및 상품 개발 ▲전문 교육 과정 운영 ▲사회공헌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치매 관련 최신 연구 성과를 보험 상품 개발에 반영해 보장 체계를 고도화한다. 또 치매 관련 의학 지식과 돌봄 정보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협업 등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및 지원 활동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방·진단·치료·보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치매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 대응 수준을 높여 나간다는 목표다.

이강영 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 전문성과 금융·보장 서비스를 결합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세브란스병원은 치매 예방부터 치료, 돌봄, 사회적 지원에 이르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로봇수술 5만례 달성 기념식

로봇수술 성과 돌아보고

디지털 기술과 AI 기반 미래 수술 패러다임 공유



세브란스병원이 3일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로봇수술 5만례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세브란스병원이 축적해 온 로봇수술 성과를 돌아보고, 디지털 기술과 AI가 이끄는 미래 수술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기념식은 이종수 로봇내시경수술센터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함원식 로봇내시경수술센터 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과 이상길 연세암병원장, 장철호 세브란스병원 수술실장, 신혜경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인튜이티브의 데이브 로사(Dave Rosa) CEO와 글렌 바보소(Glenn Vavoso) 수석부사장이 특별 연설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의 로봇수술 5만례 달성을 축하했다. 이어 5만례 달성 인증패 전달과 케이크 커팅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5만례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나균호 네이버 헬스케어 소장은 ‘로봇수술의 과거, 현재, 미래: 생성형·퍼지컬 AI 시대’를 주제로 로봇수술과 AI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소개했다. 이어 최용범 인튜이티브 대표이사는 세브란스의 다음 5만명 환자를 위한 인튜이티브의 협력 의지를 전했다.

이후 임상과별 로봇수술 현황과 미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의대 허규하·박형석·민병소(외과학), 이창영(흉부외과학) 교수가 연자로 나서 로봇수술 등 미래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은 “이번 5만례 달성을 계기로 로봇수술 분야에서 축적한 임상 경험과 교육·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 급성기 환자 연계 활성화 세미나 개최

강남세브란스병원이 15일 병원 대강당에서 ‘2026년도 급성기 환자 연계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가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화에 맞춰 급성기 환자의 신속한 입원 회송과 체계적인 퇴원 지원 등 의료전달 체계 효율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사에는 김용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을 비롯해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진과 약 25개 협력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용욱 병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세미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입원회송 현황(진료협력센터)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2단계 시범사업(의대 박중현 교수(강남 재활의학과)) ▲재활의료기관(회복기) 제도(로체스터병원 서인석 병원장) ▲

방문재활 제도(분당베스트병원 김승택 병원장)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현황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조재희 진료협력센터 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해 환자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환자 회송 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 암 신환 패스트트랙 구축 등 논의

운영위원·임상과장 통합 워크숍 개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3일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확대)운영위원·임상과장 통합 워크숍’을 열고 주요 경영 현안과 병원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김용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을 비롯해 조시현 진료부원장과 임재열 연구부원장, 조강수 기획관리실장, 안성귀 적정진료관리실장, 각 임상과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준비 현황,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현황 및 지표 개선 방안, 신환 초진 환자 증대 방안, 토요 로봇수술 및 적합 질환자 비중 제고 방안 등을 중심

으로 진행됐다.

먼저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응급 관독 관리 등 환자 안전 관련 주요 항목을 점검했다. 특히 수술 부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술실 입실을 제한하는 내규 개선 등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코드 화이트 대응과 관련해서는 평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반복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외 건물 의 경우 상황 전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커뮤니케이션 방식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증도 향상과 적합질환자 비중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신환 초진 환자 증대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신환 대기 일수와 예약 경로를 점검하고 타 대학병원의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김용욱 병원장은 “암환자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 암분야를 중심으로 신환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용인,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3회 연속 1등급

중증도평가 시행률 등 ‘진료 과정’ 영역 5개 지표 모두 100% 달성

경기 남부 고위험 신생아 치료 핵심 의료기관 인정 받아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4차)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 결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은 3회 연속 1등급을 달성하며, 경기 남부 지역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 역량을 다

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환경 개선 및 의료관련

감염예방 등을 통한 환자안전 중심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세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진료 과정 영역에서는 ▲중증도평가 시행률 ▲충정맥영양(TPN) 협진 시행률 ▲신생아중환자실(NICU) 회진률 ▲신생아 소생술 교육 이수율 ▲원외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

배양 시행률 등 5개 지표에서 모두 100%를 달성했다.

박진오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3회 연속 1등급 획득으로 신생아 중환자 진료 전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과 의료 질을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고위험 신생아와 미숙아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J&S Packaging 회장 21만달러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박병주 J&S Packaging 회장이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으로 21만달러(약 3억 651만원)를 후원했다.

후원금은 강남세브란스병원 환경개선과 의료장비 구입 등 병원 발전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병주 회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병주 회장은 THE 미래 발전후원회 위원인 권혁은 IS동서 회장과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을 통해 후원을 시작해 의료원과 소중한 첫 인연을 맺었다.

Class of 1962 10만달러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의과대학을 1962년에 졸업한 미주동창(Class of 1962) 한 사람이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0만달러(약 1억 4615만원)를 무기명으로 후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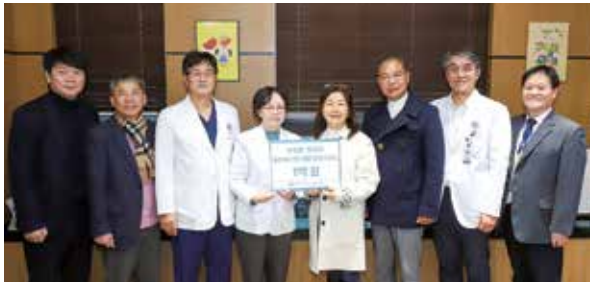
이번에 후원한 동문은 졸업 후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모교 발전과 의과대학 신축을 응원하며, 후배들이 최첨단 교육환경에서 미래 의학을 이끌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뜻을 담아 후원금을 전했다.

이영은 후원자 1억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연구동 건축기부금

이영은 후원자가 최근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연구동 건축기부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이 후원자는 “배우자가 지역 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번 기부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지역 주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이어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의 의미를 전했다.

한편 이영은 후원자의 배우자인 한재현 용인 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지난해 4월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연구동 건축기부금으로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마상곤 협운해운 회장 1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마상곤 협운해운(주) 회장이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1억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진료, 연구 등 병원 발

전 사업에 사용된다.

마상곤 협운해운 회장은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응원을 전한다”고 말했다.

THE 미래 발전후원회 위원인 마상곤 회장은 2019년부터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소화기내과 발전기부금, 연구발전기부금 등을 전하며 3억원 이상 기부해 오고 있다.

이태희 연세푸른내과의원 원장 1억원



의대 신장질환연구소 연구기부금 강남 신장내과 발전기부금

이태희 연세푸른내과 의원 원장(의대 98년 졸)이 최근 의과대학 신장질환연구소 연구기부금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발전기부금으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후원했다.

이태희 원장은 “신장질환연구소와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의 지속적인 발전을 항상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희 원장은 2010년 첫 후원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꾸준히 신장질환연구소 연구기부금을 보내오고 있으며, 누적 6억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전했다.

안교선 동진통상 회장, 김성숙 여사 부부 1억원



의대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발전기부금

안교선 동진통상(주) 회장(연세대 상경대 상학과 64년 졸), 김성숙 여사 부부가 최근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발전기부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안교선 회장 부부는 2023년 5억원을 약정한 후 세번째 후원금을 전했다.

안교선 회장은 “심장내과와 심초음파 연구가 발전해 환자분들께 큰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하종원 교수님을 비롯해 항상 애써주고 계신 의료진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교선 회장의 누적후원금은 8억원이다.

대신송촌문화재단 1억원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

재단법인 대신송촌문화재단이 최근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으로 1억원을 후원했다.

2024년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 5억원을 약정한 후 두번째 후원금이다.

이번 기부금은 어린이병원 진료환경 개선, 진

료역량 강화 등 주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신증권 창업자인 고 양재봉 명예회장이 1990년 설립한 대신송촌문화재단은 학술·의료·체육 진흥, 소외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AK홀딩스 1억원

어린이병원 소아소화기영양과 발전기부금

AK홀딩스가 최근 어린이병원 소아소화기영양과 발전기부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AK홀딩스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이 소아소화기영양과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욱 큰 힘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K홀딩스는 누적 3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세복 간호대 동문 1억원

간호대 발전기부금

김세복 간호대학 동문(간호대 76년 졸)이 최근 간호대학 발전기부금으로 1억원을 전했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세복, 김세욱, 김선영, 조동숙 간호대 동문과 이현경 간호대학장, 박정옥 교무부학장, 최은경 기획부학장 등이 참석했다.

김세복 동문은 “세브란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느꼈던 감사함과 졸업 50주년을 맞이해 이번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간호대 후배들이 학업을 이어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현경 간호대학장은 “모교를 위해 거액의 후원



금을 전해주시는 김세복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선배님들께서 닦아오신 길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간호대학을 이끌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예성 파인더패턴 대표 8000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후원금

한예성 (주)파인더패턴 대표가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후원금 8000만원을 전했다.

기부금은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한예성 대표는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제때 치

료받지 못하는 소아청소년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후원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한예성 대표는 2022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총 11차례 기부금을 전해오고 있으며, 누적 기부금은 2억 1000만원에 달한다.

문한경 디지털국제공조 회장 5000만원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발전기부금

문한경 디지털국제공조(주) 회장이 최근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발전기부금으로

5000만원을 후원했다.

문한경 회장은 “남은지 교수님의 세심한 진료에 큰 감동을 느낀다”며 “지속적으로 산부인과학교실이 발전하길 소망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한경 회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2024년 약정한 1억원을 완납했다.

이조건 삼달수산 대표 5000만원



의료원 발전기부금 의대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소화기내과)

이조건 삼달수산 대표가 최근 의료원 발전기부금 2000만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

부금(소화기내과) 3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조건 대표는 “항상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이라며 “소화기내과와 함께 의료원이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조건 대표의 누적후원금은 1억 5000만원에 이르렀다.

엔터테이너 이수지 후원자 3000만원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 (소아청소년)

엔터테이너 이수지 후원자가 최근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소아청소년)으로 3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수지 후원자는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잠깐이나마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고있으면 매우 행복한 마음”이라며 “완화의료센터가 지속적으로 환자들을 위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주시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수지 후원자는 기부 외에도 2024년부터 소아암 병동을 방문해 환아들과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전달하는 등 재능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김대중 대공개발 회장 3000만원

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김대중 (주)대공개발 회장이 최근 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으로 3000만원을 전했다.

김대중 회장은 “이번 기부가 더 많은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란

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 회장은 2013년부터 후원을 시작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누적 기부금은 5억 3000만원에 달한다.

임준희 후원자 3000만원

의대 신축기부금(5020프로젝트)

임준희 후원자가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5020프로젝트)으로 3000만원을 후원했다.

고윤우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임교수

의 병모인 임준희 후원자는 신축 의대 내 이비인후과학교실 역사관의 성공적인 조성을 응원하며 기부금을 전했다.

개그맨 문세운 후원자 3000만원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개그맨 문세운 후원자가 최근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문세운 후원자는 “환자들을 위해 투명하게 치료비를 지원해주시는

세브란스병원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환자들이 밝은 미소를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한번의 후원금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세운 후원자는 2023년 후원을 시작해 의료원과 소중한 인연을 맺어오고 있으며 이번 후원을 통해 누적기부금은 9000만원을 기록했다.

윤상범 후원자 3000만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연구동 건축기부금

윤상범 후원자가 최근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연구동 건축기부금으로 3000만원을 기부했다.

윤 후원자는 “머느리와 인연이 있는 혈액종양내과 김수정 교수님이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의료진의 우수한 연구 여건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교수님들이 마음껏 연구에 매진하고, 그 결실을 우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자 기부



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부가 용인세브란스병원 성장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따뜻한 의료 혜택과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

최진식 심팩 회장 3000만원



의대 신축기부금

최진식 (주)심팩 회장이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

최진식 회장은 “가정 의학과 강희택 교수님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을 선도하고 계

신 연세의료원 모든 교직원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금이 의과대학 신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식 회장은 심팩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에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이번 후원금을 포함해 기부총액은 7억 5000만원을 넘어서었다.

1000~3000만원 기부

의료원

- 장두식 (주)에스앤씨시스템즈 회장 발전기부금 2000만원

의과대학

- 권은숙, 박승연 후원자 신경외과학교실 발전기부금 뇌종양 1000만원
- 김은서 다나아비인후과 원장(의대 87년 졸) 신축기부금(5020프로젝트) 2000만원 이비인후과학교실 발전기부금 1000만원
- 류기선 연세유엔외과의원 원장(의대 89년 졸) 외과학교실 발전기부금-외과 1000만원
- 박종태 박종태유비외과의원 대표원장 유방암정밀의학연구소 연구기부금 1000만원
- 박효진 로드인베스먼트(주) 상임고문 호흡기 및 중환자 의학연구기부금 1000만원
- 봉하옥 봉피부과의원 원장 신축기부금(5020프로젝트) 1000만원
- 안치성, 성옥숙 후원자 부부 여성생명과학연구소 기부금 2000만원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지역외사집담회 이비인후과학교실 발전기부금 2000만원
- 연세대 이문형 명예교수(의대 86년 졸) 신축기부금 1000만원
- 예병국 연세재활의학과의원 대표원장(의대 10년 졸) 재활의학교실 발전기부금 1000만원
- 오한진 을지대학교의료원 교수 신축기부금(5020프로젝트) 1000만원
- 유문숙 엠씨디(주) 대표 비뇨의학교실 발전기부금 2000만원
- 윤성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비인후과학교실 두경부암 발전기부금 1000만원
- 이정호 한국과학기술인 교수(의대 03년 졸) 신축기부금(5020프로젝트) 1000만원
- 임한관 연세크라운비뇨의학과의원 대표원장 신축기부금(5020프로젝트) 1000만원

- 의대 이유미 교수(내과학) 신축기부금 1000만원
- 정재현 동문(의대 00년 졸) 신축기부금 1000만원
- 조인창 비아이오성형외과 원장(의대 75년 졸) 성형외과학교실 발전기부금 1000만원
- 홍진표 새안안과 원장(의대 03년 졸) 안과학교실 발전기부금 1000만원

치과대학

- 2026 치과대학 학부모회 발전기부금-110주년 미래기부금 1000만원
- 치대 정일영 교수(보존과학) 발전기부금-110주년 미래기부금 1000만원

간호대학

- 김원희 간호대학 동문(간호대 84년 졸) 발전기부금 1200만원
- 선우정학회 장학기부금 2400만원
- 윤송조창석문화재단 장학기부금 1060만원

의학도서관

- 김미희 사서팀장 발전기부금 1000만원

세브란스병원

- (재)천주교한미음운동본부 사회사업후원금 1000만원
- 유옥임 후원자 신경과 발전기부금-파킨슨병운동질환 1000만원
- 장수기 사파파과연세비뇨기과의원 원장(의대 84년 졸) 사회사업후원금 1000만원
- 주안장로교회 사회사업후원금(선한 사마리아인) 1000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 안경수 이조화섬(주) 대표 발전기부금 1000만원
- 조영숙 후원자 감염내과 발전기부금 1000만원
- 최민석 후원자 연구발전기부금 1000만원

재외 동창 기부

재외 동창들의 기부 소식은 미주동창회와 UB(United Board)를 통해 전달되는 기부금으로 별도 코너를 마련해 소개합니다.

의과대학

- 고윤희 미주동창(61년 졸) 홍혜경 미주동창(69년 졸) 부부 신축기부금 \$100000
- 김계영 미주동창(76년 졸) 신축기부금 \$1000
- 김영숙 미주동창(70년 졸) 신축기부금 \$1000
- 김주희 미주동창(91년 졸) 후배사랑 장학기부금 \$250
- 김충규 미주동창(77년 졸) 신축기부금 \$5000
- 이원대 미주동창(76년 졸) 신축기부금 \$10000
- 이원재 미주동창(62년 졸) 신축기부금 \$50000

- 이영빈 미주동창(61년 졸)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연구기부금-이석신 \$1000
- 정봉 미주동창(73년 졸) 신축기부금 \$71267 신경외과학교실 발전기부금-이헌재 교수 \$71267
- 최홍열 미주동창(68년 졸) 신축기부금 \$20000

간호대학

- 정영심 미주동창(67년 졸) 장학기부금 \$200000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사로 전하지 못하는 기부 내용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고 | 에밀 투라친제(Emile Turatsinze) 연수의

사람을 세우는 의사:에비슨의 꿈을 르완다로 이어가다

1994년 르완다에서 종족학살이 일어났을 때 나는 다섯 살이었다. 불과 100일 동안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그비극을 피하지 못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가족과 친척 남성들은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살당했고, 어린 나에게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동생 뿐이었다. 아버지도 몇해후에 돌아가셨다.

열두 살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자신과 약속을 하나 했다. 의사가 되어 가족과 지역사회의 아픈 사람들, 특히 병든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약속을 이루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여정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려운 환경은 나를 성장시키는 학교가 되었고, 수많은 장애물은 내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2014년, 나는 르완다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다.

인턴으로 처음 배치된 곳은 르완다 한 시골 지역병원이었다. 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옆에 자리하고 있었고, 주민들에게 자전거는 여전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응급실에는 매일같이 교통사고 환자들, 실려 왔다. 대퇴골과 경골 골절, 큰 관절 탈구를 비롯한 심각한 근골격계 손상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환자들을 돕고 싶었지만, 당시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적이었다. 환자 상태를 안정시키고 통증을 조절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긴 치료 여정 시작에 불과했다. 나라 전체에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많은 환자들은 몇 달 뒤로 잡힌 예약표를 들고 다시 내게 돌아왔다. 어떤 환자는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거의 1년을 기다려야 했다. 어렵게 만난 전문의도 대부분 일반외과 의사였고, 다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의뢰되어야 했다.

당시 르완다에는 전국을 통틀어 정형외과 전문의가 단 두 명뿐이었다. 더욱이 그 두 사람은 진료뿐 아니라 막시작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음 세대 전문의를 양성하는 일까지 감당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내 질문은 달라졌다. 더 이상 “왜 이 환자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나는 정형외과 전공의 과정을 선택했고, 2020년 12월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2021년부터 지방 권역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나는 한 개 주(Province)를 담당

하는 유일한 정형외과 전문의였고, 많은 환자들은 여전히 수도 키갈리의 대학병원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다. 젊은 전문의였던 나에게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나는 혼자서 아니었다. 군 (military) 병원 경험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우리 병원을 찾아와 복잡한 수술을 함께 시행해 주었고, 어려운 증례마다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주었다. 그분들을 통해 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웠다. 좋은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의사를 길러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한 사람의 의사를 세우면, 그를 통해 앞으로 수천 명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그 무렵 르완다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정부와 르완다대 학교는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4년 두 명뿐이었던 정형외과 전문의는 2025년 50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전문 분야로 이어졌고, 의료인 양성이 한 나라의료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르완다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퇴행성 척추 질환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나, 현재 르완다에는 정형외과 척추 전문의가 한 명 뿐이다.



나는 다시 같은 질문 앞에 섰다.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나를 세브란스병원으로 이끌었다. 나는 지금 르완다 보건부 추천과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의 Avison International Fellowship 지원을 받아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수술을 배우고 있다. 귀국하면 르완다의 두 번째 척추 전문 정형외과 의사가 된다.

그러나 세브란스에서 내가 배우는 것은 첨단 척추수술만이 아니다. 나는 이 병원을 세운 의료선교사 올리버 에비슨 박사가 남긴 정신도 함께 배우고 있다. 140여 년 전 조선을 찾은 에비슨 박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한국인 의사를 길러내고 의학교육의 기초를 세웠으며, 오늘의 세브란스로 이어지는 씨앗을 심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한 나라의료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르완다에서 전문의 부족 현실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온 나에게 에비슨 박사 이야기는 과거 역사가 아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현재 이야기이다.

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의사가 되고 싶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의사

가 성장하고, 그 의사를 통해 더 많은 환자가 치료받는 의료를 꿈꾼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는다.

언젠가 르완다의 젊은 의사 한 사람이 내게 배운 것을 다시 다른 의사에게 전하고, 그 의사가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낸다면, 에비슨 박사가 140여 년 전 한국에 심은 씨앗은 르완다에서도 새로운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오래전 내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에도 비로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제 나의 대답은 분명하다. 혼자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의사가 되는 것.

그것이 세브란스에서 내가 배우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며, 내 조국 르완다에서 평생 이어가고 싶은 삶이다.

끝으로 귀한 가르침을 아끼지 않으시는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님들과 동료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경르완다선교기금’을 통해 소중한 연수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박서경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은 앞으로 르완다의 수많은 환자와 미래 의사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최영득 교수, 비뇨기암 로봇수술 7000례 돌파

전립선암 로봇수술 독보적 경험 축적, 맞춤형 술기로 치료 성과 높여



의대 최영득 교수(비뇨의학)가 최근 비뇨기암 로봇수술 7000례(전립선암 6338례, 기타

비뇨기암 662례)를 돌파했다.

최 교수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정씨(74세)에게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비뇨기암 로봇수술 7000례를 달성했다. 환자는 부작용 없이 회복해 퇴원했다.

최 교수는 2005년 첫 로봇수술을 시행한 이후 2012년 1000례, 2017년 3000례, 2023년 6000례를 달성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1000례를 추가하며 7000례 고지에 올랐다.

전립선암 수술은 좁은 골반 안에서 이뤄지는 고난도 수술이다. 전립선 주변에는 배뇨 기능과 성기능에 관여하는 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있어, 암 조

직을 정확히 제거하면서도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정교한 술기가 중요하다.

전립선암에서 로봇수술을 많이 하는 이유다. 로봇수술은 고해상도 3차원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확대해 확인할 수 있고, 로봇팔을 이용해 좁은 공간에서도 정밀한 절제와 봉합이 가능하다. 절개 부위가 작아 통증과 출혈을 줄일 수 있으며, 환자 빠른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최 교수는 특히 복막을 열지 않는 복막의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로봇 전립선암 수술은 복강 안으로 로봇팔을 삽입해 진행하지만, 이 경우 장기 손상 가능성이 있다. 복막외 접근법은 배꼽 아래에서 방광 위 공간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복강을 거치지 않아 장 손상 위험을 줄이고 수술 후 통증 감소와 빠른 회복에도 기여한다.

다만 복막의 접근법은 로봇팔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집

도의에게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 최 교수는 오랜 기간 축적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술기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며 환자 부담을 줄이고 있다. 지금까지 집도한 전체 로봇수술 7000례 중 약 92%는 전립선 절제술로, 로봇 전립선 절제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임상 경험을 축적해 왔다.

최 교수는 환자 암 병기와 종양 위치, 형태 등에 따라 술기를 달리 적용하는 환자 맞춤형 로봇 전립선 적출술을 발전시켜 왔다. 암 조직을 정확히 제거하면서 요도조직과 성 신경, 혈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배뇨 기능과 성 기능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최영득 교수는 “환자마다 암 위치와 형태, 진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로봇수술도 환자 상태에 맞춰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환자를 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술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게시판」

우리 교수들이 지난달 28일 열린 제 52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술상 등을 다수 수상했다.

의대 조연아 교수(강남 방사선종양학과)는 이날 머크 암학술상을 수상했다. 머크 암학술상은 대한암학회가 암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학회원들에게 수여하는 학술상이다. 조연아 교수는 항암·방사선 치료 후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근감소증과 이에 따른 림프구감소증이 치료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의대 김혜련, 홍민희, 김규현 교수(내과)는 같은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두경부암에서 PTK3CA 유전자 변이 위치에 따라 표적치료제 알렐리시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규명해, 유전자검사 기반 정밀의료 임상적 유용성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의대 김찬 교수(생화학·분자생

물학교실)는 같은날 제15회 광동암학술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진행성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 속 순환종양DNA를 분석하는 액체생검과 종양 조직 유전체 분석 결과 일치도를 규명해 액체생검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최수영 용인세브란스병원 보험심사팀장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제26주년을 맞아 감사패를 받았다. 최 팀장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평가 업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원석 사무처 시설관리팀 설비관리파트장이 최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6년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 파트장은 노사 협력 기반 자율적 안전보건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다.